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름	최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외레브로
파견대학	O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22.08.15~2023.06.10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스웨덴 외레브로 (Orebro) 도시에 있는 외레브로 대학교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외레브로는 법학, 의학, 심리학 등의 학과가 유명하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스웨덴어로 Socionom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레브로 대학교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세계 대학교 순위에 따르면 상위 50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성정을 보여주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p>
2022-2학기	<p>1. Swedish Politics and Policy 처음수강한 수업으로, 한번의 발표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론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난이도는 교환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스웨덴의 정치와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스웨덴의 사회전반에 대해 파악하는데, 이후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 교과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 전공자라면 추천드립니다. 다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p>2. Social Work,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Societies and Families 가족과 자녀의 관계, 양육에 대해 이론과 사례를 배우며, 스웨덴의 사례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강의, 다른 한 번은 세미나로 자신이 해당 코스동안 파이널로 작성하며 제출할 과제에 대해 브리핑 및 피드백 정도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으며, 소수정예로 진행되었습니다. 14명 정도 중 2명은 스웨덴 본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p> <p>3. The Geography of Sweden 매우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가벼운 팀플로 진행되며, 이케아 방문, 버스를</p>

	<p>타고 지역 탐방, Wadköping 등을 방문하며 짧은 발표를 준비하여 자신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공유하는 수업입니다. 이론도 일부 진행되나, 전혀 무겁지 않고 스웨덴의 또 다른 부분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도 진행되니 꼭 참여하시고 해당 지역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꼭 드셔 보길 추천 드립니다. (스웨덴 음식이 별로 맛있다고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를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할 줄 아는 국가는 몇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장체험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p> <p>4. Imagining Sweden-Swedish History and Culture Since the 19th Century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든지 인문 또는 사회계열의 수업에서는 젠더에 대한 논의가 꼭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수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스웨덴의 역사, 바이킹 등에 대해 배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19세기에 대한 역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웨덴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평등에 대해 주로 다룹니다. 세미라는 스웨덴 토착민에 대해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고 스웨덴 사회가 어떻게 현재의 복지국가, 성평등, 젠더 평등 국가로 발전했는지 그 역사와 비판 또는 평가를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매 수업 시수가 많지는 않으나 자료를 읽고 자신의 코멘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논의합니다. 시험은 수업에서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질문이 주어져, 에세이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p>
2023-1학기	<p>1.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p> <p>해당 수업은 첫 학기에 수강하였나 성적처리가 좀 늦게 된 관계로 두번째 학기에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정말 이론을 주로 배우며, 어김없이 토론과 발표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론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관련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어 보셨다면 많이 겹칠 것입니다. 남자 젊은 교수님이 메인 교수님 이셨는데, 같은 교수님께 듣는다면 성적을 후하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해당 수업의 시험은 기말대면 시험이었으나, 컴퓨터로 치른 시험이었습니다. 즉, 집에서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오픈북 형식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다지선다형, 객관식형, 서술형 등의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으며, 스웨덴은 PASS를 위해 60%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 프로그램에 사전기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제가 시험을 치를 때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시험 전, 교수님께 여쭙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시험은 시작하기 45분 전에는 도착하셔서 컴퓨터를</p>

	<p>세팅하셔야 하니, 일찍 도착하시기를 매우 추천 드립니다.</p> <p>2. Global Communication 저의 전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마케팅 수업이었으나 교수님께서 한국의 사례를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셨기에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의 사례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도 수업을 기반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수업에서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기에 비 전공자도 이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미리 자신이 생각하는 사례도 적어 두시면 시험을 훨씬 수월하게 치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3. Gender Equality and the Nordic Welfare State 교환학생이 들을 수 있는 젠더 수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은 있었으나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저에게는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되며, 이후 더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수업으로 다른 젠더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동양의 유교사상을 통한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그것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4. Sociology, Gender, Diversity and Organization 젠더 수업을 듣고 접하기 한결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기관과 젠더, 다양성, 사회학을 접목시켜서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정의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팀플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운이 좋게도 좋은 친구들과 팀플을 하여 마지막까지 스웨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 두번째로 스웨덴 학생들이 많이 들은 수업이라고 기억합니다. 시험도 수업을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가을학기부터 시작하시면 오리엔테이션이 5주로 구성되며, 야외 그룹활동도 있고 대부분은 맘에 클럽에 입장하여 클럽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레브로에 있는 모든 클럽은 대부분 다 가보실 수 있으며, 더 이상 클럽에 대해 기대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즐기기 어려우신 분께는 클럽 내부의 술은 상당히 비싸니, 미리 섭취 후, 클럽에 입장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외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최대한 참여하고 이 외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진행되는 교육도 참여하시면 유익하실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에도 ESN이라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면 많은 교환학생들과 계속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흑야를 얼추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10월정도만 되어도 해가 부쩍 짧아지며, 겨울 중에는 오후 3시쯤이면 해가 저서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에 조금을 허탈감인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름 날씨는 한국 기온과 비슷할 정도로 더우니, 반팔을 챙겨가시고 여름에도 건조하여 빨래가 잘 마르니, 가슴기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에도 상당히 건조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빨래가 상당히 잘 마릅니다. 눈은 해마다 다르나, 4월까지 오는 것을 경험했고 한번 오기 시작하면 한국보다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자주 눈이 오고 비가 옵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드물고 소나기처럼 잠시만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산과 우비는 구비를 하시되,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너나할 것 없이 피크닉을 많이 합니다. 대기가 푸르고 맑으니, 스웨덴만의 하늘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피크닉을 자주하실 계획이라면 시즌이 오기전 미리 사시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3배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p>
안전	<p>외레브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자전거 도둑 맛집입니다. 자전거는 꼭 필요하나, 자전거 도둑이 많고 그 유형도 다양하니 시내를 가시는 것 이외의 자전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기숙사 주변에서도 새벽에 도난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좌물쇠에 신경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는 매우 안전한 도시이며,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50분을 걸어서 학교에서 시내 버스정류장까지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할 정도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치안에 대해서 너무 깊은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기에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잘 설치되어 있어 좋은 풍경을 보기에 좋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Studentgatan에 거주하였으며, 스웨덴 학생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방은 넓고 개인 화장실이 겸비 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학생을 학교 기숙사보다 개인 자취방을 구하는 것이 더 흔하며, 같은 기숙사 학생으로 만나더라도 매우 조용하고 깔끔하며, 대학원 학생일 수 있습니다. 즉, 접점을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교환학생들은 생각보다 파티를 매우 좋아합니다. 원칙상으로는 금지 되어있으나 다들 자신들의 공용 공간을 사용하여 친구들을 초대하므로, 금요일 밤, 토요일 밤과 새벽은 경우에 따라 매우</p>

	<p>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방음은 상당히 잘 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새로 지은 Pine이라는 공간은 공용공간이 세탁실뿐입니다. 즉, 친구들과 만나서 요리하거나 담소를 나누려면 누군가의 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p> <p>마지막 Red house는 12명에서 13명이 그 집을 같이 사용하는데 마음이 잘 맞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p> <p>선택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Oak House 도 고려할 수 있다면, 신식 Red HOU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p> <p>음식은 직접 해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외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동, 신림, 강남 등 서울 중심가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학생할인이 되는 곳, 점심 가격을 제공하는 곳 등에서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때도 종종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리실력을 겸비해가신다면 친구들에게 한식도 가르쳐줄 수 있고, 같이 요리해서 서로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종 양념과 소스는 아시안 마트 또는 일반 마트에서 약 1.5배의 가격 또는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조미료가 필요하시다면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식품을 챙겨 가시고 아니시라면, 대부분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교통	<p>2023년 교통권 가격이 올라서 학생 기준 38kr 정도였습니다. 이는 약 5000원 정도이며 90분 사용 가능합니다. 외레브로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며, 자전거를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비싼 교통권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한번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는 매우 크고 쾌적하며, 기사님이 매우 안전 운전을 하십니다. 스웨덴에서는 주로 옆자리를 비워두고 앉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며, 앉으셔도 되지만 서로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유명한 사진처럼 1m씩 거리를 두고 버스를 기다리지는 않으나 주변에 개인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은 참고로 스톡홀름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 METRO가 없습니다. 버스만 이용하시거나 인터시티 버스, 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는 노선만 외레브로 공항에서 라이언 에어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확인 후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71만원	2022년 4월쯤 결제하였으며,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ISIC 통하여 왕복 할인권을 8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순천향대학교 본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지불하시는 가격과 동일하게 지불하였습니다.
보험료	0원	외레브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보험만 활용하였습니다.
숙소	약 월 45만원	
식비	약 월 50만원	
교통비	월 1만원 이내	주로 자전거나 도보를 활용하였으며, 여행을 가고 돌아올 때만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책값	0원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e-book사용하였습니다.
생필품	약 월 10만원	종종 필요한 것이 갑자기 생길 때를 대비하여 10만원씩 잡았습니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요한 것은 대부분 외레브로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배송이 조금 느리지만, 인터넷 쇼핑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실 휴지가 생각보다 비싸고 문구류 등 플라스틱, 종이 등으로 만들어진 환경과 관련된 모든 상품은 더 높은 부과세 (약25%)가 부여됩니다. 상당히 비싸니, 한국에서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전 학기 학생들로부터 중고 상품을 구매하는 페이스북 스타터팩 페이지를 학교 메일로부터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 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필요하신 상품만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조언 드리며,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물건 잘 챙기시고 거주허가증 발급절차는 미리미리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에서부터 조금은 연습하고 준비 해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진심으로 참여할수록 재미있으니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국에서 챙겨올 수 있는 물품은 프로그램 주제에 맞춰서 챙겨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와 소통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며, 영어를 잘 하든 못 하든 마음이 맞는 친구는 어디든지 있을 것입니다. 벽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지만 조금이나 문화차이를 느끼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므로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면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처럼,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실 것이니 꼭 한 번 다녀 오시길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사진 뿐입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사진 예쁘게 찍는 것도 조금은 연습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설명: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캠퍼스 야경



스웨덴 음식



학교 외부



학교 뒤 평야



친구들과의 크리스마스 식사